



제2 창사 기틀 마련 - YTN 신사옥 이전 결정 -

YTN은 남대문로에 있는 남대문대우빌딩[가칭 YTN 미디어센터]으로 이전을 결정했다. 현재 대우건설이 건축중인 이 빌딩은 (주)코람코가 (주)대우건설로부터 매입해 자산유동화방식으로 운용된다. YTN은 코람코가 세우는 리즈법인에 일부 투자하기로 하고 건물 4개층을 임대해 입주하게 된다. YTN이 리즈법인에 투자하기로 한 것은 방송시설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해야하며 시설의 효과적인 설계변경과 운용이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지난 9년동안 사용해온 연합뉴스건물에서는 방송시설의 디지털 전환은 물론 DMB 등 뉴미디어를 수용하기

어렵고 방송품질의 개선을 위한 시설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새로 입주할 [YTN미디어센터]는 지상20층의 A급 인터넷전트 빌딩으로 연면적 1만2천8백평 규모이고 올해 말 준공예정이며 YTN은 2004년 3월까지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YTN은 신사옥 이전을 계기로 내부혁신을 추진하고 방송의 품격을 높이는 작업을 병행할 것이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스튜디오와 시설을 바탕으로 미래의 멀티미디어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남대문로에 있는 YTN미디어센터 조감도

YTN, 중국 방송 시장 진출 중국 가화그룹과 합자회사 설립 계약 체결



유한공사 총경리 등 한국과 중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국 외상합자 기업법에 따라 YTN 49%, 가화 51%의 지분 참여로 설립되는 합자회사는 한류와 중국 연예 소식을 한데 묶은 방송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해 중국 방송사를 상대로 판매하게 된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은 YTN이, 판매는 가화가 담당하게 된다.

YTN과 가화는 합자회사와는 별도로 중국 내에서 한중 신인가수 선발대회를 열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중국 베이징시와 잉추안, 상하이, 충칭, 다롄, 허베이,

YTN은 지난 7월 11일 중국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하기로 하고 중국 가화문화경제유한공사와 합자회사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베이징 중화세기단 귀빈실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YTN 표완수 사장과 윤중수 전략기획팀 차장, 거리지(葛立智) 가화문화그룹 부회장, 안명(安盟) 가화문화 경기

심천 등 7개 대도시를 돌면서 지역 예선을 벌인 뒤 11월 중순 최종 결선전을 거쳐 가수를 선발하게 된다. 선발된 가수 중 1명은 국내 보컬 그룹 '여행스케치' 멤버로 기용돼 국내외에서 활동하게 된다. 가화문화경제유한공사는 중국 베이징시와 광전중국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가화문화집단 자매사로 프로그램 제작 판매와 연예 매니지

먼트 사업을 하고 있다. 가화그룹은 특히 중국의 밀레니엄 행사와 올림픽 유치 기념행사가 열렸던 중화 세기단을 보유하고 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문화행사 주최권을 갖고 있는 문화전문 그룹으로 모두 29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YTN 표완수 사장은 이번 방중에서 중국 CCTV를 방문해 뉴스 교류와 프로그램 공동 제작, 동시 방송 등 양사의 협력 방안을 위한 실무 작업을 벌이기로 합의했으며 인민일보와도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8월호 HEAD LINE

- | 2 | ▶ YTN 단신
- | 4 | ▶ 중국 출장기 / 앵커 교육 이수후기
- | 6 | ▶ Digital YTN - 다시 태어날 홈페이지 기대하세요
- | 3 | ▶ YTN은 글로벌시대의 방송매체
- | 5 | ▶ 특별기고 - 왜 쟁점토론이 필요한가
- | 7 | ▶ 고문변호사 인사말 / 특별기고 - DMB와 YTN
- ▶ 노무현 대통령 중국 수행 취재기
- ▶ 자랑스런 YTN 사우 - 2003 asia digital award에서 입선
- | 8 | ▶ 프로그램 탐방 - 저녁 6시 '뉴스 투데이'

YTN 단신

YTN 위성방송 남미지역에 네트워크 구축



YTN은 7월 1일부터 브라질 '한국TV방송(사장 이승원)'을 통해 브라질 상파울로 지역에 YTN을 실시간 공급하게 됐다. 올 연말부터는 남미 전역에 위성방송을 통해 방송 될 예정이다. 현재 브라질 상파울로 지역 2천여 가구가 YTN을 시청하고 있으며, 올 연말 위성방송 서비스가 시작되면 수신가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미에는 9만여명의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YTN은 전세계 위성방송을 위해 미국 PanAmSat사의 PAS-2, PAS-9, PAS-10 등, 3개의 위성채널을 임차해 올해 3월 1일부터 한국어 위성방송을 시작했으며, 북미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북미동포의 40%가 시청하는 등 전 세계 네트워크화를 추진 중에 있다.

신 보도정보시스템 8월부터 시행

새로운 보도정보시스템이 8월 1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지난해 9월부터 개발해 최종 완성된 '신 보도정보시스템'은 실제 방송환경 시뮬레이션과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 8월부터 방송에 활용됐다.

신 보도정보시스템의 특징은 ▶ 언제 어디서나 기사 작성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전화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접속이 가능하고 ▶ 기사와 관련정보를 반영구적으로 보관, 검색이 가능하며 ▶ 원도우 기반으로 개발돼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앵커 연수 실시



YTN은 언론재단의 연수프로그램을 활용해 6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6회에 걸쳐 앵커 교육을 실시했다.

앵커 연수는 인권, 언론법, 정보검색, 국제·한국경제, 북핵문제 전망, 앵커 이미지 관리 등 실제 현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을 선택했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했다. YTN은 앞으로도 직능교육 등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양해각서 체결



YTN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7월 16일 항공우주기술에 대한 대국민 홍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YTN은 향후 1년간 항우연의 주요 사업을 취재 보도하고 그 영상 자료를 항우연과 공유하며 항우연은 YTN의 취재보도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표원수 YTN 사장은 축사에서 항공우주기술은 국가의 기반기술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연석 항공우주연구원 원장도 YTN과 같은 좋은 파트너를 맞이하게 돼 기쁘다며 이 같은 홍보 협력 사업이 대덕 벨리내 다른 연구원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TN과 한·일 불교복지협회 양해각서 체결



YTN과 한·일 불교복지협회, 일·한 불교복지협회는 7월 22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일본에 유출된 북관대첩비를 원래 자리인 함경북도 길주군으로 옮기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북관대첩비는 임진왜란 당시 함경도 지방에서 의병을 일으켜 왜병을 격퇴한 의병장 정문부를 기리기 위해 숙종 때 함경북도 길주군에 세워졌던 전공비로 1905년 일본군에 의해 강탈된 뒤 지금까지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방치돼 왔다.

2003 러브미 가족체험캠프 우리쌀이 건강한 미래를 드립니다.



YTN은 농림부와 함께 쌀의 소중함을 자연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러브미 가족체험캠프'를 열고 있다. 8월 중 전국 3개 지역에서 열리는 이번 캠프에는 무료로 누구나 가족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자녀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 러브미 가족체험 캠프! 쌀이 드리는 건강함이 생생히 살아있는 자연 친화 캠프다.

게시판

- 포상
 - 특종상 은상 임수근(사회1부) '군 사병 성추행 자살사건 보도'
 - 특종상 동상 김준영(사회1부), 박관 우(영상취재부)
 - 홍지문 터널 화재 CCTV화면 단독입수 보도
 - 배성준·김정현(경제부)
 - '철도과업 찬반투표 실시와 철회결정 보도'
- 우수프로그램상 편집2팀 『YTN 뉴스퍼레이드』
- 우수촬영상 박정 호 (영상취재부) 『한강 야경』 영상제작
- 공로상 김익현·주현득(매체관리팀)
- 노대통령 방미시, 실시간 방송시청 해결 공로
- 창의상 이현 직(제작기술부) 앵커용 Mic 자석 홀더 제작
- 입사
 - 전범석(전략기획팀)6,1자

- 임선혜(국제부)6. 9자
- 박천옥(총무부 부산지국 파견)
- 김윤순(타워사업국)
- 오종호(전략기획팀)7. 1자
- 퇴사
 - 김경한 제작2팀장5. 29자
 - 정성대(총무부)6. 3자
 - 이윤경(국제부)6. 30자
 - 장영길 기술관리부장7. 18자
 - 최진욱(기술국)7. 18자
 - 이영욱(총무부)7. 19자
 - 최영윤(편집3팀)7. 25자
- 연수
 - 채문석 차장대우(정치부)
 - 송태업 차장대우(사회1부)
 - 이기정 차장대우(문화과학부)7. 17 ~ 2004.7. 16

- 이광영(정치부)7. 16 ~ 2004.7. 15
- 전보
 - 박종찬 기술관리부장7. 25 자
- 부음
 - 정현교 강릉지국장부친상 7. 10
 - 이기래(중계부)부친상 7. 16
- 회갑
 - 유근민(제작기술부) 장모7. 4
 - 고민철(영상취재부) 부친7. 7
 - 김한철(제작기술부) 장모7. 11
 - 정경남(제작기술부) 부친7. 13
 - 김성태(제작기술부) 장모7. 21
- 출산
 - 한민정(문화과학부) 득녀7. 9
 - 원종호(영상취재부) 득남7. 21

“YTN은 글로벌시대의 방송매체”

지난 7월 노무현대통령의 중국방문기간중(7.7-10) YTN은 수행원과 기자단에게 위성을 통해 국내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 그 진가를 발휘했다. YTN은 노무현 대통령이 묵고 있는 조어대는 물론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메리어트호텔 모든 객실에도 현지공관등의 협조를 얻어 YTN위성방송 수신기를 설치했다.

방중수행단 관계자는 “외국에 나와 있는데도 국내소식을 바로 바로 시청할 수 있어 단절감이 없어 좋으며 YTN이야말로 글로벌시대의 방송매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노무현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뉴욕과 워싱턴, 샌프란시스코의 대통령숙소와 프레스룸 등에 YTN 위성수신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국내소식을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 중국 수행 취재기

‘YTN과 함께 한 3박4일’



상수중 (정치부)

요즘 들어 나라 밖에서 YTN 뉴스를 접했다고 말하는 것은 진부한 감이 없지 않다. 이미 이 지면을 통해서도 몇 차례 이런 소식이 소개돼 감동의 맛이 덜할 뿐만 아니라 나라 밖을 드나드는 것이 다반사가 된 지구촌 시대에 직접 눈으로 확인한

이가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굳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필자가 펜을 든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국민방문을 수행 취재하면서 보고 느낀 점이 내 판에는 조금은 각별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지난 7월 7일부터 3박4일 동안 이뤄졌다. '사스로 유례없는 홍역을 치른 중국'로서는 수습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외국의 국가원수라는 점에서 각별한 예우를 갖췄고 현지 언론의 관심 또한 유난했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현안을 안고 있는 한국과 병마를 털고 일어나 '진강 증명'이 필요한 중국의 행복한 만남이었다라고 해야 할까?

첫 방문지인 베이징 수도공항에 도착해 곧바로 숙소이자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메리어트 호텔로 이동했다. 짐도 풀기 전에 허겁지겁 첫 기사를 송고하고 난 연후에야 프레스센터 양면에 대형 모니터가 눈에 들어왔다. 모니터에서는 그 시각 YTN의 뉴스 내용이 위성을 통해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었다. 수행 취재단은 도착한 지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 노 대통령의 베이징 도착 화면을 YTN을 통해 생생하게 시청하는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 특히 이번에는 대통령이 묵고 있는 '조어대'는 물론 호텔 모든 객실에서까지 YTN을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돼, 적어도 뉴스 시청이라는 측면에서는 나라 안과 밖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김승환 베이징 특파원이 노력이 매우 컸다는 점을 특별히 밝혀둔다. 김 특파원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상당수가 YTN을 시청함으로써 한인 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기능의 한 축을 담당하

고 있다니 자못 뿌듯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베이징 방문 기간 동안에는 '한·중 정상 공동기자회견', '칭화(淸華)대학 연설' 등 유난히 생방송 행사가 많았고 YTN은 매체 특성상 그 영향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었다.

한·중 정상회담 일정을 성공적으로 매듭짓고 귀국 전에 들른 상하이.

중국 경제 발전의 상징답게 상하이는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변화무쌍함을 자랑하고 있었다. 이 상하이에서도 YTN은 우리 바로 곁에 있었다. 상하이에서는 특히 국내 방송 가운데 유일하게 YTN만을 시청할 수 있어서 수행원에서 기자들에 이르기까지 YTN이라는 매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해외에서는 YTN이 국가기간 방송이다”라는 어느 수행원의 말이 굳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일정에 쫓겨 부랴부랴 원고를 쓰고, 읽고, 송출한 뒤 10여분 뒤에는 정반대로 멀리 서울에서 송출하는 내 리포트를 느긋하게 앉아 감상하는 짜릿함도 만끽할 수 있었다.

청와대를 출입처로 두고 있어 지난 두 달 사이에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세 나라를 잇달아 방문하는 행운을 가졌다. 그러면서 YTN이 재외 동포재단과 손잡고 의욕적으로 시작한 교민 대상 위성방송이 이제 단순한 생색내기 차원을 벗어났다는 점을 절감했다. 뉴욕에서 만난 교민은 “YTN은 시보만 해도 너무 고맙다. 그것만으로도 모국과 이곳은 충분히 연결된다.”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 만큼 YTN 가족들이 더욱 노력하고 신경 써야 할 일이다. 더구나 KBS가 전 세계 교민을 대상으로 한 위성방송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만큼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본다.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화상(華商)네트워크'가 생각났다. 지금 중국은 세계의 돈이 모여드는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 잡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는 세계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강력히 연대하고 있는 '화상'들의 노력이 절대적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우리도 '한상(韓商)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가까스로 씨앗을 뿌렸다. 서울공항에 도착할 즈음 '한상 네트워크'가 무럭무럭 자라는 소식을 YTN에 실어 전 세계 교민들에게 실어 나르는 희망을 생각해 봤다.

덧붙이는 말

해외에 나가면 YTN의 '홈쇼핑' 광고가 눈에 거슬린다는 지적이 많다. 교민들을 상대로 한 광고 개발도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본다. 각국의 교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세계를 연결하는 YTN만의 프로그램도 고려해 볼 일이다. 끝으로 워싱턴과 도쿄에서 다른 언론사에 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유의 취재 활동과 함께 YTN 알리고 넓히기에 애쓰는 배석규, 강철원 특파원에게 뒤늦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중국 출장기

한류에 다시 불을 붙인다



윤종수 차장대우(전략기획팀)

한류!
한류란 중국을 시작으로 대만과 홍콩, 베트남과 아시아를 휩쓴 한국의 대중문화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 “한류는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적어도 중국에서는 “...” 말없음 표가 돼 있다. 한때 국가의 중요 산업정책 중 한 부분을 차지했었고 현재도 정부를 비롯해 모든 관계자들이 붙잡고 해법을 찾으려하는 한류가 이제는 이렇게 과거형이 되어버린 채 긴 잠에 빠져든 것이다. 13억 인구라는 단 한마디로 거대 시장을 상징하는 중국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단어 ‘한류’

이 ‘한류’와 전략기획팀이 만난 것은 ‘회사 발전계획안’을 내 놓으면서 화두로 던졌던 글로벌 종합미디어 그룹을 실현하기 위해 방안을 구체화하던 중이었다. 일본이나 미국, 유럽, 남미와 아프리카까지 YTN의 전파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도 유독 중국만은 YTN의 수신권에서 빠져있었다. 일부 공관과 교민들이 스피드 오버되는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YTN을 보고 있었지만 대부분 불법. 한국에서는 이미 아리랑 TV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고도 결국 손

을 든 상태였다.

물론 중국에서도 CNN과 프랑스의 TV ASIE 등 일부 외국 방송이 수신되지만 외국인이 투숙할 수 있는 4성급 호텔로 한정돼 있다. 전략기획팀이 내린 결론은 YTN의 뉴스 콘텐츠로 중국 시장을 뚫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방법은 중국과 YTN이 공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중국 방송을 통해 내보내는 것이 유일했고, 이 또한 중국 광전총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사업임을 알게 됐다. 이 과정에서 북경시와 북경시 광전국이 공동으로 출자한 가화그룹에게 최종 허가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화 그룹과 본격적인 접촉에 들어갔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가화그룹이 향후 중국 문화 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독점적 문화 그룹이란 사실과 사업 범위가 문화 산업 전반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삼성과 LG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이 전략적 파트너로 삼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다 결국 포기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한마디로 돈이 되

는 파트너라는 게 전략기획팀의 판단이었다. 결국 2달여의 발 빠른 행보 끝에 합자 회사 설립에 합의하고 중국 방송, 문화 시장에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디디게 됐다. 후일담이지만 중국의 가화는 YTN이라는 회사의 성격과 공신력을 판단하기 위해 중국 외교부를 통해 여러 차례 우리 회사를 검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역시 문광부와 주한 중국 대사관, 관광공사 등을 통해 가화 그룹을 여러 차례 검증하고 확인을 가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이빈주한 중국대사와 문광부 간부, 관광공사 해외사업본부 등에 진심어린 고마움을 표한다.

〈가화그룹〉

1997년 자본금 3억 3천만 불 규모로 세워진 중국 최대의 문화 그룹. 북경시와 북경시 광전국이 100% 공동 출자. 3개 소그룹 산하에 29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고 주요 자매사로는 북경텔레비전(B-TV), 가화 음상, 가화 경기 등이 있음. 중국의 밀레니엄 타워인 가화세기단을 가지고 있고 북경 올림픽의 개, 폐회식 주관사를 겸임하고 있다.

앵커 교육 연수후기

방송의 꽃이 아닌 ‘열매’가...



이광연 (앵커팀)

단아해 보이지만 나름의 강인함이 묻어나 보이는 한 여자 분이 프레스 센터 12층 강의실로 들어 왔다. “안녕하세요?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처장, 안주리입니다.” 그렇다. 이번 YTN 앵커 연수의 테일을 끊으신 강사이시다. 약 4주간의 앵커 연수는 안주리 강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모두들 나눠준 수첩과 펜을 어색하게(?) 꺼내어 마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기나 한 듯이 자세를 잡고 수업에 임했다. 쏟아진 질문과 토론 막내인 나로선 낯선 모습이었다.

사실 그 동안 분장실이나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서로의 모습과 브라운관에 비쳐진 서로의 모습에 익숙했지 토론과 질문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생소한 게 사실이니까.

이틀 후 이어진 수업은 동아일보 권혜진 기자의 “정보 검색 실습”이란 수업이었다. 사실 인터넷 하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다지 사용하기 어려운 매체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인터

넷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질과 양은 크게 달랐고, 또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공간은 한정돼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개인적으로 이 수업이 가장 재밌었고 유익했다. 강수돌 교수의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제목만 보면 참 무겁고 딱딱한 수업이겠거니 하고 느껴지지만, 내용은 뜻밖에 재밌고 실용적인 내용. 그 날의 명언은 우리 모두들 기억할 것이다.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마지막 수업은 국장 두 분도 참석하신 양 창순 강사의, 〈앵커 이미지 관리와 조직 스트레스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의 강의였다. 평소 정신과에 한번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자주 했는데 이날 현대인의 노이로제, 강박 등의 증상을 실제 유형별로 강의를 듣고 났더니 꼭 정신과 상담을 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본인의 증상(?)을 솔직하게 얘기하며 강사로부터 조언을 들었는데, 나는 평소 내가 다중인격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자주해서 여쭙봤더니, 다행히도 그건 정신이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말씀 해주셨다. 소심한 나.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사실 어렵게 마련된 기회에 모두들 최선을 다해 참석하려고 한 열의를 보였지만, 3교대를 하고 있는 우리의 근무 여건상, 집중력 있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 시간과 공간이 허락한다면 모두 함께 며칠이라도 같이 지내면서 교육도 받고, 그 동안 하지 못했던 토론도 해보고, 서로의 색깔도 더 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좋겠다.

또 “그 선배가, 혹은 그 후배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 시간이었다. 모두들 일에 쫓겨 일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얘기 나눠볼 시간이 적은 게 현실이다.

더욱 욕심을 내 말해보자면 앵커 개인의 능력, 그에 걸맞는 “맞춤형 연수”를 제공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말하고 싶다.

특별기고 - 왜 쟁점토론이 필요한가

북어국



박찬숙 앵커 (생방송 쟁점토론)

조용하다. 그는 분명 열심히 일하고 있다. 혼자 몰입해

있다는 증거다. 매우 시끄럽다. 그는 어떤 일에 명백히 빠져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산업시대와 지식시대의 이질적 특징을 분류한 내용이다.

한 번에 한 가지씩 혼자 조용히 해나가는 산업시대에서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로 여럿이 팀 중심으로 해나가는 지식시대.

유형적 제품생산에 연공서열의 승진제도, 종신고용이 보장되는 9시 출근 5시 퇴근의 봉어빵 시대는 지나갔다.

무형적 성과에 네트워크화된 동지들과 24시간 열려있는 복잡하지만 재미있는 창조적 지식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

9시 뉴스를 놓치면 하루가 짹짹했던 때가 언제였는가.

떠나간 기차를 향해 애타게 손짓해본들 땡개치고 달아난 님이 다시 올손가.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부르면 기차는 뒤로도 달려온다. 틀면 보인다. 누르면 화면이 뜬다. 술 한 잔하고 들어와 잔 다음 날 아침 콩나물 북어국 대령하는 예쁜 마누라같이 YTN은 튀어나오려고 기다리고 있다. 꼭 정시 뉴스 9시 뉴스일 필요가 없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웬 24시간 뉴스, 할 일도 꽤나 없나보다, 돈이 썩어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그런 사람도 있었다.

이제 촌락단위로 좁아진 지구촌 애깃거리의 24시간도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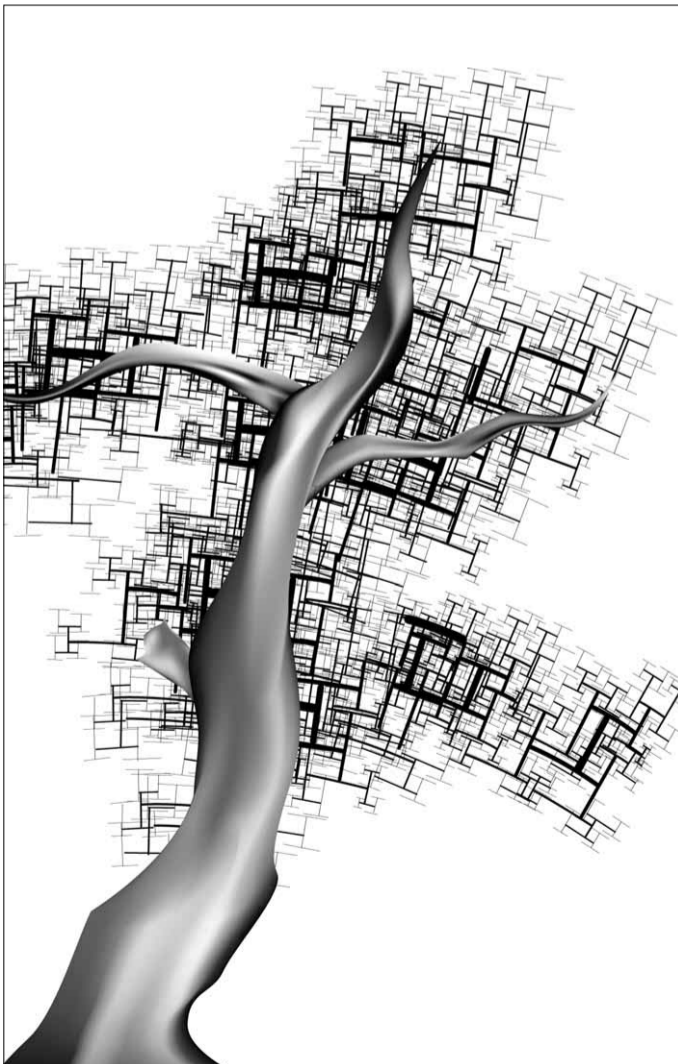
모르면 지식시대에 한 발 빼고 있는 것이다. 빠른 것만이 좋은 것인가. 속도, 정확하고 빠른 것이 가장 좋은 것일 텐데 무슨 수로 빠르면서 정확하기까지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 있도록 손가락이 부르도록 전화취제도, 구두 뒤창이 해지도록 사건을 뒤지기도 한다.

그래도 아쉬워 분석이 필요하다. 토론이 필요하다. 왜 일까. 문제는 없는가, 차이는 좁혀질 수 있는가, 지금의 선택이 어떤 시점의 미래를 위한 것인가 등등 따져봐야 한다. 공부할 것이 참 많다. (언제나 공부 못한 사람이 뒤늦게 공부타령 한다.)

종신고용의 산업시대에서 종신학습의 지식시대로 넘어온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짤린다. 왜 YTN이 필요한가, 왜 쟁점토론이 필요한가, 여러분은 눈치 채셨을 것이다. 취객을 위한 북어국이 아닌 지식시대인을 위한 북어 한 쾌 사러 동대문 시장으로 떠나야겠다.

지랑스런 YTN 사무

2003 asia digital award에서 입선



기상팀의 새벽 지킴이 강병운 사무가 또 대형 사고를 냈다. 물론 방송사고는 아니고 일본 휴렉 팩카드가 주최한 세계적인 디지털 그래픽 경연인 2003 asia digital award에서 입선한 것이다. 14개국에서 912개작품이 기량을 겨뤘는데 5위에 해당하는 입선작에 들어 주최측의 초청으로 오는 9월 12일 일본으로 가상을 받게 된다.

Q: 이전에도 그래픽 관련 상을 몇 차례 탄 것으로 기억하는데?

A: 원래부터 다른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겨루기를 좋아해요. 상복도 많이 따르는 편이에요

- ▶ 98년도에 레더 데코 씬 특별상(3등)
- ▶ 98년 한국 산업 디자인 전람회 고교 부문 특선
- ▶ 99년 한국 산업 디자인 전람회 고교 부문 특선
- ▶ 2000년 컴퓨터 그래픽 대전 입선
- ▶ 2001년 ALISA WAVE FRONT 장려상
- ▶ 2002년 COOL 광고 공모전 금상 등 이규요 이번엔 국제 그래픽 공모전에 당선된 거죠

Q: 작품 설명을 부탁할까요?

A: 나무의 논리적 설명이라는 제목인데요. 지구촌 사회를 표현한 겁니다. 금속성 나무 몸체는 바로 지구를 의미하구요. 나뭇잎들은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한명 한명씩 인간들이 모여 도시를 이루고 국가를 만들면서 지구촌이라는 나무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의미죠. 모든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연결돼 있구요.

Q: 앞으로 어떤 그래픽을 만들고 싶어요?

A: 제가 2D그래픽으로 시작해서 YTN에 입사한 뒤부터 3D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D가 하면 할수록 매력이 있어요. 가상의 공간과 사물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 낼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3D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국내 최고의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Q: 기상 그래픽을 담당하고 계신데, 기상 그래픽은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실 건가요?

A: 3D의 장점을 많이 활용해서 시청자에게 새로운 정보와 다른 방송사에서 느끼지 못했던 생생한 느낌을 주고 싶습니다.

Q: 아직 군인 신분이죠?

A: 네 올 12월 제대입니다.

공익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새벽 근무 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가 끝난 뒤에는 회사에 다시 와서 오전까지 밤을 새우면서 그래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를 하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기상 그래픽에 쏟아 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강병운 사무 첫 인상은 터프해 보이지만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자신감과 디자이너다운 감성이 느껴지는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24살)임에도 그래픽 분야에서 YTN의 위상을 높이고 자기만의 위치를 구축해 가는 강병운 사무는 진정한 YTN맨이다



강병운 (기상팀)

Digital YTN - 다시 태어날 홈페이지 기대하세요

새로운 동지, 새로운 얼굴

이승언 (Digital YTN)

5월 26일 이곳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으로 온 이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 할 새도 없이 바로 홈페이지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Digital YTN'이라는 이름을 걸고 기존의 식구들과 새로 이곳에 동지를 둔 식구들이 함께 뛰어들어 열심히 그야말로 정신없이 두 달여를 준비했고 아직은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지만 추후 2차, 3차 추가되는 개편사항이 있으므로 우리는 서서히 하나하나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8월 7일을 1차 개편일로 확정했다.

우리는 타 신문사들과 방송3사와의 장, 단점을 비교 분석해 YTN만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기로 방향을 잡았다. 일단 YTN은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사이며 24시간 뉴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가장 큰 merit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속함이 가장 생명이 되어야 하며 신속함과 함께 방송사의 장점인 동영상 볼 수 있다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 기존 보다 뉴스 동영상의 수를 대폭 증가시켰으며 현재 인터넷 사용자의 흐름에 발맞추어 일부 서비스는 고화질로 제공하며 현장생중계, Today's 인터뷰, 돌발영상과 같은 새로운 코너를 준비하여 일반뉴스 이외에 네티즌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뉴스라는 큰 바탕 위에 YTN만의 색을 입혔다.

또 YTN의 충성도 높은 네티즌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정보를 요구해오는 젊은 층을 겨냥해 정보, 시사, 문화, 과학, 레저 등의 고급정보를 부각시켜 네티즌들에게 딱딱한 뉴스만이 아닌 고부가가치 정보를 서비스함으로써 새로운 분위기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편은 일단은 전반적인 디자인 개편과 함께 YTN이 생산하는 텍스트와 동화상 각종 뉴스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8월 1차 개편 후 차차 이뤄나갈 부분으로는 뉴스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의견을 쌍방향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덧글달기'와 보다 폭넓은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며, 더욱 다양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정보 영역, 맞춤서비스를 위한 회원제 도입도 현재 계획 중에 있다. 아울러 YTN서울타워의 홈페이지도 진행할 예정이다.

Digital YTN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YTN의 24시간 실시간 뉴스 콘텐츠를 활용해 유무선 인터넷을 주요 사업 영역으로 삼고 나아가 고부가가치 정보 서비스를 개발해 다양한 플랫폼에 제공하는 신규 수익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Digital YTN'의 mission 이다.

'새로운 멀티미디어 세계를 여는 Digital YTN' 우리는 이렇게 슬로건을 정했다.

DY의 미래를 열어갈 새 식구들을 소개한다.



권석주(서비스개발담당)
회사와 함께 자라나고, 동료분들과 Co-Work 하면서 회사를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Digital YTN에서 근무하는 동안 '茶半香初'란 말을 되새김 하며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System Engineer)
일반적인 시스템 관리만을 하고 있지만, 목표는 보안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와 이터엔은 IT업계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진(경영관리)
재무, 회계, 총무 등 경영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 이외에도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와 관련된 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만큼 기회가 된다면 많이 배워보고 싶습니다.



함석현(기획본부)
기획본부에서 온라인 마케팅 및 프로모션 전반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유익한 YTN site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타워동정



북 대표단, YTN 서울타워 참관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하고 있는 북측 대표단이 7월 10일 남산에 있는 YTN 서울타워를 참관했다.

김령성 북측 단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은 1 시간가량 YTN 서울타워를 방문

해 강감출 YTN 서울타워국장의 안내로 타워내 여러 시설물을 둘러보고 전망대를 구경했다. 북측 대표단은 특히 전망대에서 서울시내 전경을 둘러보며 청와대, 청계고가도로 철거현장, 삼암 월드컵 주경기장, 무역센터 등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 왼쪽부터 강감출 YTN 서울타워국장, 정세현 통일부장관, 김령성 남북장관급 회담 북측 단장이 전망대에서 서울시가지를 보고 있다

사원동정



김천석 차장대우(매체관리팀)는 7월 9일 방송위원회 주최로 열린 'PP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PP 부문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차장은 PP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상파의 방송광고 독과점과 방송시장 장악에 있다고 진단했다. 지상파가 방송광

고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와 케이블 TV에서 드라마, 스포츠, 영화 등 인기 채널을 장악해 시청률과 수신료를 독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 독과점 문제는 현행 KOBACO 체제에 케이블TV 진입 또는 별도의 민영 미디어랩을 구성하고 시청 점유율에 따른 정확하고 정당한 광고요금 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케이블업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지상파PP 진입을 공익채널로 제한해 지상파의 방송시장 독점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PP는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는 거듭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유화성(기술관리부) 사우는 7월 9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기술인상'을 수상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방송 현업에 공로가 큰 기술인을 선정해 '이달의 기술인상'을 수상한다.

고문변호사 인사말

언론과 사법, 그 간격을 좁힐 수는 없을까



박형상변호사

먼저, YTN과의 이번 인연에 감사 드린다.

오래전의 일이나 YTN을 위해 한번쯤은 일했던 적이 있었다. 지상파소속의 보도 분야 PP채널을 추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YTN의 주문(?)에 응했던 인터뷰가 그것이다.

변호사생활을 시작한 이래 시민언론단체쪽에서 통합방송법제정을 지켜보기도 했고, 한국기자협회·한국사진기자협회 자문변호사와 기자상 심사위원,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시청자고충처리위원,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

의위원 그리고 여타 케이블방송사나 지상파방송사의 법률고문으로 일 해오면서 우리 방송계나 언론계를 폭넓게 접할 수 있었다.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언론과 사법사이의 그 멀리 벌어진 간격이 쉽게 좁혀지지는 않는 것 같다. 서로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다한다면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우리 사회를 잘 지탱할 수 있을 것임에도 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방송금지가처분인용사건이나 대전법조비리보도사건만해도 서로의 입장을 역지사지해 볼만한 경우이겠다. 우리 현행법체제아래서 YTN기자가 그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결국 애증관계에 놓인 둘 사이를 본 변호사가 매개하고 통역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고문변호사로서 당부 드리는 몇 가지 요망사항
 • 분쟁예방차원에서의 사전대책이 중요하되, 분쟁 발

생 후에는 그 원만한 수습방안쪽도 외면하지 말자.

- 언론분쟁에서의 협상·합의를 자존심의 손상으로 보기보다는 합리적 선택행위라고도 생각해보자.
- 특종과 특종오보 사이는 백지 한 장 차이일 뿐이니 부디 서두르지 말고 현장과 관련당사자의 입장을 꼭 확인하자.
- 이른바 Fact지상주의를 앞세워 단정적 공격보도로 시종하느니보다는 시청자들과 화면을 공유한다는 입장이 돼보자. Fact와 Truth를 구별해보면서 다양한 의견을 공평하게 옮겨주는 전달자 쪽도 유념하자.
- 기초적 법률용어부터 정확히 사용해보자.
- 이른바 전문가·관계자를 참칭하기보다는 진짜 전문가를 찾아보고 그 인용자료출처를 명시하자.
- 계약서는 역설적으로 계약을 깨기 위한 것이니 그렇게 깨질 때에 대비하여 작성하자.

(사법연수원 18기, 한국언론재단 및 중앙대신방과 강사,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8인공저」)

특별기고 - DMB와 YTN

DMB, 방송시장을 바꾼다



주정민 교수(전남대 신방과)

지금까지 우리는 텔레비전을 거실의 한 곳이나 사무실 한 쪽을 지키는 매체로 인식해 왔다. 그래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즐겁게 시청하는 서비스로 생각해 왔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텔레비전 화면은 클수록, 선명할수록 좋다고 생각해 왔고, 여러 사람이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는 내용일수록 좋은 프로그램으로 간주해 왔다. 이에 따라 텔레비전은 가정의 정보와 오락을 담당하는 매체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텔레비전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이른바 DMB의 출현으로 텔레비전은 이동중심의 소형매체로 그리고 개인중심의 매체로 바뀌고 있다. 방송사는 시청자들에게 소형 휴대단말기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음성

과 영상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휴대단말기를 통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자동차에서 볼 수 있는 '멀티미디어'

DMB 서비스는 기존의 방송서비스와는 달리 이동수신이 가능하다. 휴대전화처럼 고속으로 달리는 버스나

기차, 자동차 등에서 소형단말기를 통해 자유로운 서비스 수신이 가능하다. 이용자들은 이동 중에도 데이터는 물론 동영상의 서비스와 기타 부가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DMB 서비스는 초기에는 주로 자동차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보급될 전망이다.

DMB 서비스가 실현되면, 개인들의 텔레비전 시청행위와 패턴이 변하게 된다. 개인들은 텔레비전을 집단적으로 시청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시청하기 된다. 따라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DMB 단말기를 통해 수신하는 개인적인 시청이 보편화 될 전망이다. 이동전화의 보급으로 개인중심의 통화가 휴대전화를 통해 이뤄지듯이 개인중심의 영상서비스는 주로 DMB를 통해 이뤄질 것이다.

개인 중심 '정보형 서비스'

DMB서비스의 콘텐츠는 개인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내용이 중심을 이룰 것이다. 이동형의 DMB는 드라마와 같은 연속적인 서비스, 혹은 시청자가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서비스에는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라디오처럼 단발적이고, 가볍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적합하다. 따라서 DMB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콘텐츠는 개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형 서비스가 될 전망이다.

개인들이 휴대 단말기를 통해 이동 중 혹은 개인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그 형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휴대용 단말기가 갖고 있는 화면크기의 제약 때문에 웅장하면서도 장시간의 서비스보다는 짧은 시간동안 핵심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심을 이루게 될 것이다. 1-2분 길이로 제공되는 휴대전화의 동영상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가 DMB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을 것

이다.

DMB서비스는 기존의 방송처럼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이뤄지지 않는다. DMB서비스는 정보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능동적으로 서비스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인터넷의 하이퍼링크 시스템을 이용하듯이 DMB의 EPG 기능을 활용하여 정보나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른바 '찾아서 이용하는 서비스'가 DMB의 핵심 콘텐츠가 될 전망이다.

'맞춤형 서비스'의 시작

라디오방송의 디지털화에서 시작된 DMB 서비스는 기술발전 따라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로 방송 서비스는 점차 개인들의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DMB는 방송 분야에서 개인들의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DMB 서비스는 초기에는 정보제공자의 계산된 편집행위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라 단말기가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능형 서비스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개인 중심의 서비스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동성을 고려한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반영한 적극적인 서비스 개발이 향후 DMB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들의 욕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콘텐츠 개발과 이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킬러응용리케이션 개발이 앞으로 전개될 지상파 DMB서비스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탐방 - 저녁 6시 '뉴스 투데이'

현재진행형 종합뉴스 「뉴스 투데이」



1. 타순(打順)짜는 PD?

오후 3시 반 출근하는 뉴스투데이 담당 PD. 그날의 주요뉴스를 훑어본다. 4시 반 간단한 제작회의가 열리고 News Value에 따라 헤드라인이 정해지면 PD는 컴퓨터 앞에 매달려 런다운을 작성한다. 어느새 방송 5분전, PD, 완성된 런다운을 들고 정위치! 그런데

등록실: 톱 없구요. 2번 3번 5번 리포트도 없는데요.(-;:::)

PD:(헉, 또) 좀 더 기다려 보죠.

PD: 2분전인데 리포트 왔나요?(Please!)

등록실:(-;:::) 안 왔는데요.

PD:(τ, τ) 그래요 그럼 6,7,8번을 통째로 톱으로 올립니다.

벌써 헤드라인이 돌고 3번 타자였던 6번 리포트는 갑자기 톱 타자가 돼 방송을 타고 있다. 또 그런데

등록실: 7번도 없는데요(-;:::).

PD:(π, π) 그럼 말이지.

PD, 오늘도 머리가 아프다. 야구감독 같다. 리포트가 나가는 1분 30초 동안 타순을 새로 짜야 한다. 가능한 한 당초 점찍었던 홈런타자를 스코어링 포지션에 세우면서

2. 오늘은 무슨 일이, 지금은 어떤 일이?

뉴스투데이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에 이 질문에 답을 한다. 새벽 5시 '굿모닝코리아'에서 시작해 12시 '뉴스퍼레이드', '2시 뉴스의 현장'을 거치며 숨 가쁘게 달려온 YTN 뉴스가 한데 모이는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뉴스투데이가 첫 출발을 한 때는 창사이래 최대의 편성개편이 있었던 지난 3월이다. 벌써 네 달이 지났건만 아직도 방송이 끝날 때까지는 긴장의 연속이다. 종합뉴스지만 여전히 급박한 현장상황이 많은 저녁 6시라는 시간적 특성상 언제든 런다운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선후배 기자들이 발로 뛰며 만든 소중한 취재물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PD는 앞서 밝힌 것처럼 하루하루가 결승전에 임하는 야구감독 같다. 그러나 이렇게 가변적이라는 게 뉴스투데



이의 매력적이고 YTN의 강점이다. 부담이 크지만 그만큼 보람도 큰 이유다.

3. 과연 세 시간이나 빠를 수 있을까?

편성개편 당시 6시 뉴스가 51분이나 되는 종합뉴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연실색 했던 게 사실이다. 한 경쟁사는 '한 시간 빠른 뉴스'라고 자랑을 하는 마당에 도대체 하루가 제대로 정리도 되지 않은 저녁 6시에 '세 시간이나 빠른' 종합뉴스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주사위는 그냥 던져졌다. 그래서 몇 가지 불가피한 전략을 세웠다.

첫째, 가공하지 않는다.

리포트가 없으면 전화로, 전화가 없으면 단신으로 뉴스를 제작한다는 것이다. 뉴스공급자는 스타일에 치중하지만 대체로 수요자는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로 뉴스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품질은 높지만 속도를 감소시키는 텍스트 보단 이미지를 선택했다. 다소 거칠더라도 시청자들에게 명료한 임팩트를 주는 게 '3시간 빠른 종합뉴스'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둘째, 런다운은 단지 예정보다.

뉴스투데이에는 종합뉴스지만 공중파처럼 각본대로 뉴스를 진행하지는 않는다.

저녁 6시는 하루를 정리하기는 애매한 시간대다. 때문에 뉴스투데이의 런다운은 가변적이다.

셋째, 경도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세대간 이념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저녁 6시는 갈등의 한쪽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다. 최대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방송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뉴스투데이는 큰 사고 없이 저녁 종합뉴스로서 나름대로 연착륙에 성공했다고 본다. 물론 부지런한 취재 기자들과 임기응변에 능한 방송 기술팀 등의 노력 덕분이다. 비슷한 시간대 타사는 10여분 안팎의 분량에 주요 뉴스가 겨우 단신 몇 줄로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뉴스투데이를 보면 20여개의 리포트와 전화연결, 전문가 출연 등으로 하루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뉴스투데이는 정말 그들보다 세 시간 빠르다.

4. 뉴스투데이를 만드는 사람들

가능한 한 뉴스를 가공하지 않는 뉴스투데이는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함정을 갖고 있다. 이런 단점을 지금까지 잘 극복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김호성, 정애숙 두 명의 앵커다.

베테랑 기자 출신인 김호성 앵커는 때로는 속사포 같은 멘트로, 때로는 유연한 언변으로 뉴스투데이를 맛깔나게 진행하고 있다. 또 정애숙 앵커는 특유의 침착함과 단아한 외모로 많은 고정 팬을 확보하고 있기도 하다.

뉴스 후반부에 생방송으로 출연하는 정혜운 기상앵커 역시 오늘과 내일 날씨를 깔끔하게 전달하는 뉴스투데이의 특급 마무리 투수 같은 존재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경찰청 노선양 경장!

청계고가 철거이후 시내 교통상황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 알찬 교통정보를 전달해주는 출연자다. 특히 방송 10분전이면 어김없이 스탠바이 하는 성실성에 뉴스투데이를 담당하는 PD 모두가 늘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뉴스투데이 제작을 총괄하는 추은호 팀장과 김주환, 김선희, 조현진, 함형건, 이승훈 기자, 투데이팀의 살림꾼 조미선씨까지 많지는 않지만 소수정예(?)가 오늘도 뉴스투데이를 만들고 있다.

5. 힘내라! 뉴스 투데이

뉴스투데이에는 3월 편성개편 직후 시청률이 급상승하며 한 때는 시청률이 공중파와 맞먹는 3% 안팎을 오르내릴 정도로 강세를 보였다. 시청률로도 공중파를 따라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 건 그 때가 입사이후 처음이 아니었나 싶다.

뉴스투데이에는 지금까지는 안정적인 방송에 힘을 쏟아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변해야 시청자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현장진행형이라는 긴장감과 심층보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제작팀 모두가 고민하고 있다. 이펙트와 문발 등 뉴스투데이 고유의 스타일을 새로 정립해

프로그램적인 성격을 보다 강화

해야 할 필요도 있다. 지금은

1등이 아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 가까운 미래

언젠가는 CNN 카피처럼

뉴스투데이가, YTN이

'News Leader'가 되는 날

이 오리라 믿는다.



이상순 (편집 1팀)